

제418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제 10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6일(금)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등 긴급 현안보고
-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추가)
-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 |                             |    |
|-----------------------------|----|
| 1.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등 긴급 현안보고 | 1  |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12 |
| 2.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 13 |
| 3.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 13 |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등 긴급 현안보고

(14시05분)

○위원장 어기구 의사일정 제1항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등 긴급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에 대해 진상 파악과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가적 대혼란의 진상 파악 등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현안질의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과 정부 측에서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적 혼란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한 국회의 총체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국가적 혼란 사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우리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위원님들 발언하기 전에 경과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발령되고 난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 사실 너무나 긴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과 뜻있는 야당 의원들이 총집결해서 계엄해제 촉구 결의안을 마치고 난 이후에, 사실 계엄을 발동하는 발동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저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지고 유심히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무회의라고 할지 국무회의가 아닌 장관들의 미팅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송미령 장관이 참가했고 또 그 후에 계엄을 해제하는 그 촉구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 해제 국무회의 때도, 그 모임 때도 참가한 걸로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긴급하게 쌀 문제 또 지금 경기 남부권의 폭설로 인한 피해 문제도 있고 또 특히 송미령 장관이 참가해서 12월 3일 윤석열 국가 내란 사태에 방조한 것이 있는지 또는 적극 주동한 것이 있는지, 어떤 협력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와 민주주의 또 미래를 잘 정리정돈해 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오늘 모임을 소집하게 됐습니다.

또 여당 간사께도 말씀을 드렸고 여당 간사는 현재 상황에서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도 참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당 위원님들하고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정부 여당도, 국회를 침탈한 겁니다. 국민의힘을 침탈한 게 아니라 국회를 침탈한 겁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한 겁니다.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기관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란이고 군사반란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시겠지만 여당 위원님들이 국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함께해 주는 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송미령 장관도 떳떳하다면 이 자리에 와서 자기의 입장을 소명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안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또 강도형 장관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충분히 자기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데 안 온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과보고를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간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준병 위원님 의견 개진이 있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마 우리 국민들 12월 3일 날 황당한 내용을 보시고, 저희들도 그 상황 속에서 겪었던 내용들이 황당했는데 얼마나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서히 그동안 12월 3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루어졌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각

기관들, 특히 군의 이동들 또 계엄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속속 드러나면서 40년의 역사가 뒤로 후퇴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농해수위의 현안 회의에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이런 내용일수록, 특히 국가적인 위기이고 또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쌀값 문제라든지 또는 폭설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더라도 참여해서 그런 현황을 국민과 함께, 농민과 함께 조율하고 또 함께 해쳐 나가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자세도 그렇고.....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계엄 발령 전 국무회의 또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발령요건도 충족되지 못하고 또 절차적으로도 국회에 통보도 해야 되는 절차라든지 또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 특히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지도 않고 회의 내용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또 참여한 국무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요건적 또는 절차적인 미비, 원천적인 무효인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또 국무위원으로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 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심히 유감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기회였는데 오늘 참여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기회에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송미령 장관 또 해수부장관의 12·3 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절차를 통했고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인지하고 태도를 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요. 또 쌀값이나 폭설과 관련된 현안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필요하면 중인으로 지정해서, 중인 채택해서라도 참여해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3일 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을, 선포를 했습니다.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서 야당 전체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는데요. 관련해서 경찰은 국회 진입도 봉쇄하고 국방부는 무장한 정예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고 폭력적으로 국회에 난입을 했습니다. 이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를 전복하고 그 권한을 무력화하는 국헌문란 행위로 법에서 규정한, 형법 87조·91조에서 규정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농림부장관 송미령 장관, 국무위원은 수확기 쌀값 20만 원 약속은 온데 간데없이 내팽개친 정부를 대신해서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또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농업·농민 보호를 위한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우리 국회가 통과를 시켰더니 쌀값 약속을 적극 이행해야 할 주무 부처인 송미령 장관은 쌀값 정상화 의지는 고사하고 입법부를 향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망언, 망발을 쏟아 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망칠 뻔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장관은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한 꿀 먹은 병어리가 되었고 계엄 참석 여부에도 굳게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잡으라는 쌀값은 잡지 못하고 총칼을 내세워서 국민들을 잡으려 한 내란죄 수괴인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농림부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첫 번째가 12월 3일 0시부터 12월 4일 23시까지 장관 및 차관 일정, 그리고 두 번째 12월 3일 0시부터 12월 4일 11시까지 장관 및 차관 관용차량 운행 일지, 세 번째 12월 3일 및 4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 장관 참석 및 국무회의 발언 일체, 네 번째 12월 3일 및 4일 국무회의 소집 통보받은 내용 일체 사본, 다섯 번째 언론에 따르면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사유, 여섯 번째 3일 계엄령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과 관련하여 반대의견 개진 여부, 일곱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의 국회 및 선관위 장악이 불법이라는 것에 대한 장관의 입장,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비상계엄 담화문 중 국회가 범죄자 집단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어기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삼석 위원님 질의,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철현 위원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8분 계엄법 제2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서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고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자행했습니다.

나아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서 국회 본청에 무장한 군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회 전복으로 국헌문란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문제는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입니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 2호에 따라서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되어 있고 부화수행, 즉 내란에 부화뇌동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 대통령을 포함해서 20명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는 11명입니다. 대통령, 총리를 제외하면 최소 9명 이상의 국무위원은 참석했다는 이야기인데 현재까지 누가 참석했고 참석 국무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이라는 분들이 비겁하게도 내란죄 책임을 피하려 함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고, 강도형 해수부장관은 두 번 다 불참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어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2명 내지 3명 정도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농해수위가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발언 내용,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무회의에 두 번 다 불참한 것으로 알려진 강도형 장관도 책임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긴급 소집돼서 미처 참석하지 못했다고 치더라도 계엄 해제를 심의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시간 6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4시 30분에 열렸습니다. 해외에 있던 것이 아니라면 전국 어디에 있든 충분히 참석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서 국무위원이라는 분이 6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특히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의도적으로 불참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란 범죄자 윤석열은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계엄 선포를 건의한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과 이를 실행한 주동자들도 모두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동한 국무위원들, 부화뇌동한 국무위원들, 국가비상사태에서 제 안위만 걱정해 자취를 감추었던 국무위원들도 모두 단죄해야 국헌문란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규명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 장관들 참여하에 이를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서삼석입니다.

쌀값, 한웃값, 폭설 피해대책 등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으로 회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층과 여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관련된 신상발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농·수·축·산림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나라가 사상 초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용기 있는 국민과 시민들께서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주시고 계엄을 막아 냈습니다. 또한 선량하고 양식 있는 애국하고 위민하는 군과 경찰, 공직자분들께서 그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깜짝 놀라고 크게 뉘우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값으로 고통받고 바다에서 소득원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계시는 전국의 농·수·축·산림인 여러분!

지금은 다소 어렵지만 언젠가는 쌀이 미사일보다 위력을 더 발휘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또 그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림인 여러분!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자세와 사명감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천 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먼저 송미령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기문란과 현정파괴 중범죄 혐의에서 마땅히 이를 막아야 될 국무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국민 앞에 그 진실을 그리고 그날의 실상을 정말 제대로 밝히고 사죄하는 그런 자리에 마땅히 책임 있게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상임위는 불출석하면서 언론에 입장발표 형식으로 그 책임을 벗어나려는 기만적인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송미령 장관은 두 번의 회의에 참석을 했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알았으면 안 갔을 것이다, 반대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았으면 안 갔을 것이라는 것은 책임 면피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자리였으면 갔어야지요. 가서 적극적 행동을 취했어야지요. 국기문란, 위헌적 범죄,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윤석열의 범죄적 내란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막았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이 격노하고 말을 안 들으면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비상계엄령을 막았어야 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책임 있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정작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사람으로서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자기 자리를 걸고라도 막았어야 할 사람이 국무위원으로서 정말 적절한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송 장관은 정작 농민들이 고통 속에서 쌀값 보장을 이야기할 때는 나 몰라라 모르쇠하고 기만하더니 또한 재해로 절망하는 농민들에게 재해보상, 재해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농망 4법, 재해법 하면서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더니 민생행보 운운하며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그 가식을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회에 출석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주의와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국민을 지키는 길은 이제 국회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불법 계엄군은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을 소멸시키려 했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접수했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자체를 압살한 것이고 반민주·전제정을 위한 윤석열의 군사쿠데타입니다.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 감행했다는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파괴이고 위헌이며 불법이고 명백한 내란입니다. 지금 즉시 국회를 열어 내란범죄자 윤석열 탄핵 표결에 돌입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내란범죄의 책임을 지지 않고 다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2차 계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경고하기 위해 감행했다는 비상계엄은 내란행위이기 때문에 내란범죄자들이 대한민국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미루면 위험해집니다. 국회는 빨리 내란범죄자 윤석열 탄핵 표결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범죄자들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 또한 너무나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이 역사 앞에 부끄럼지 않도록 범죄자 탄핵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께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께서도 공개적으로 윤석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더 늦지 않도록 탄핵 찬성으로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 수호의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이 맡겨 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임무,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국회에서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시키고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결단하시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자신의 후대들이 선대에 부끄러움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직 국민만 생각할 때입니다. 국민을 믿고 탄핵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정부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윤석열 내각을 이끄는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고위책임자로서 내란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회와 국민들의 진상파악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림부·해수부 장관은 이러한 진상파악을 위한 기초적인 현안보고조차 상임위 업무와 무관하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책무와 양심을 저버린 것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국민들의 진상파악 요구를 무시하고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위헌적·불법적 행위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들을 적대시하는 망발을 했습니다. 정부의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비난과 무시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송미령 농림부장관이 농망법을 자주 얘기하는데요. 이런 망발이 윤석열 대통령과 침판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라도 장관은 정부와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매도하는 일방통행식 정책만 고수하지 말고 국민들을 편 가르고 무시하지 말고 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쌀값 20만 원 고수를 위해서 정책을 폐야 된다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송미령 장관의 도가 넘는 막말을 비롯한 쌀값 폭락 등 농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파악과는 별개로 쌀값 대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송미령 장관, 강도형 장관은 행정부의 고위책임자로서 이번 내란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회 차원의 진상파악을 위한 일에 적극 책임지시고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가지고 상임위 개최에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선 위원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오늘 418회 정기회 우리 해양수산위원회에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국무위원인 해양수산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일수록 참석해서 이 위중한 국가적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여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사태는 45년 만에 이루어진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국기문란·현정파괴 행위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윤석열 씨는 내란죄의 현행범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씨는 탄핵의 대상이기 이전에 긴급체포의 대상입니다. 즉각 체포해서 사법처리에 주저함이 없이 본인의 죄값을 치르기를 강조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미령 장관, 언론보도에 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인 줄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이 없다 그것으로 마치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서 송 장관은 대한민국 농민을 대신해서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그 현장에서 농민을 대신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도형 장관, 계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인 줄 알았다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통보조차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 출석해서 변명은 변명대로 진상은 진상대로 본인이 밝혔어야 된다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무회의 소집을 받았는데 내용을 모르고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

기고 또 사후에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강도형 장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앞에 그리고 특히 폭설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어민들 앞에 본인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야 될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현안보고 의결을 통해서 앞으로 반드시 두 명의 국무위원을 참석시켜서 저희들이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행해진 비상계엄령은 명백히 위헌·위법한 조치입니다.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조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45년을 역행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을 마주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중단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막고 역사를 이어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국방위와 행안위 현안질의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것은 어설픈 해프닝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한 내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내란 주모자가 그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것은 매우 위협적인 사실입니다. 즉시 탄핵으로 직무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제 국회는 국무위원에 책임을 묻고 따져야 합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위헌적 행위를 하겠다는 윤석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무위원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 계엄이 선포된 것인지 명명백 밝혀야 합니다.

특히 송미령 장관은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농해수위가 이번 계엄 사태에 있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에게도 촉구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했고 태국은 환전을 금지했습니다. 수많은 국가에서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까지 위반했습니다. 경제와 산업계도 비상계엄의 유탄을 맞아 증시는 하락했고 경제계의 해외교류는 중단위기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만든 국격의 하락, 국가의 위기입니다. 국민들이 매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헌정질서를 위반하고 국기를 어지럽힌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에 발을 빼고 다른 꼼수를 부린다는 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시급히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국회가, 농해수위가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빠르게 현안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대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지난 12월 3일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군대가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군용 헬기와 장갑차를 투입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감행했었습니다.

이러한 위법 부당한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총칼로 위협한 불법 계엄이자 내란 행위입니다.

전시도, 대규모 소요 사태도 없는 평온한 서울의 밤을 뒤흔든 친위 쿠데타이자 정치폭동이었습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 포고령 1조는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의 범위를 일탈하는 초월적 전체주의 정권 수립의 시도였습니다.

윤석열 씨는 계엄의 명분으로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쳤지만 법 위에 군림하며 군을 통해 초월적인 권력을 구축하는 행위는 북한의 선군정치와 가장 닮았습니다. 의회와 선거관리기구마저 군대가 장악하는 북한식 전체주의 독재를 따라가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씨야말로 진정한 의미로 종북세력이고 종북 수괴이며 삼권분립의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2·3 내란 사태는 우리 경제에 대한 테러 행위이며 정권이 주도한 경제 파괴의 반달리즘이었습니다. 불법 계엄은 고환율, 고물가, 보호무역주의 추세로 이미 얼어붙은 우리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금융시장서부터 통상 정책까지 정부의 대응력을 현저히 무너뜨리며 국민의 생업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부총리 등 일부 각료가 계엄 선포 시 발생할 경제적 타격에 대해 간곡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강행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입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대통령이 경제 파탄이 날 것을 인지하고도 계엄 독재 정권 수립을 위해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불법 계엄 선포 전에 심의 및 발언할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으로 국무회의 심의에 임했는지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침묵을 하면 의혹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할 것이 분명한 이상 송미령 장관은 공범으로서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내란죄의 공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송미령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그 당시의 발언 내용 솔직하게 때에 따라서는 고백 또는 반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든 회의는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고 녹음으로 남기도록 돼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이 임시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침묵을 하다 보면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항변의 자리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대답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고백할 부분이 있으면 고백을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주 송미령 장관을 반드시 출석시키고 국무위원으로서 불법 계엄에 대한 심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불법 계엄에 대한 가담 여부와 강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따져 물을 필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에 대한 현안질의 전체회의 또는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병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제가 1979년 10월 27일 날 학교를 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다 일어나서 대통령이 서거했으니 묵념을 같이 하자라고 그러더군요. 부족했던 저는 서거가 한자어 중에 뭔지도 몰랐고 담임 선생님이 묵념을 하자라고 해서 묵념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1980년 5월 17일까지 45년 전에 있었던 비상계엄이 12월 3일 22시 23분에 다시 한번 재현됐습니다.

윤석열 씨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다, 폐악질을 일삼는 원흉들,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내비치면서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21세기 대명천지에서 세계 10위의 민주국가로 성장한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707특수부대와 1공수여단, 3공수여단을 이 국회로 진입시켰습니다.

3만 6000불이 넘는 우리 국민은 어안이 병벙했고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인가라고 의문을 제시했고 그것을 직접 목도하기 위해서 국회 앞으로 달려 나오셨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회를 싸고 있는 경찰과 대치하고 후에 출동한 계엄군과 대치하면서 우리 보좌관과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또 확보해 주셨습니다. 하늘은 대한민국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190분의 의원들이 계엄령 해제를 가결시켰습니다.

E. H.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는 역사의 전진성, 역동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진하고 앞서갈 것이 분명하건대 퇴행적 역사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 법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계엄령을 단행한 것입니다.

헌법 77조는 전시상태, 준전시상태, 실질적인 요건을 언급하고 있고 89조는 절차의 정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야 되고 또한 거기에 참여한 국무위원은 자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사관에 의해서 정리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참석하지도 않았고 커튼 뒤에 숨어서 본인의 의견 또한 국민이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답변을 재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성과 우리 국민과 함께 우리 국무위원들도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 무도한 정권과 무능한 정권의 패퇴를 위해서 같이 합류할 결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 유감스럽게도 여당의 위원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장강의 물줄기를 역류시킬 수 없다는 말과 같이 도도한 우리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행동하지 않을 결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다음에는 꼭 참석시켜서 그분들의 입장과 그분들의 당시 행적을 낱낱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며 우리 농촌에 닥쳐와 있는 현안문제 해결에도 우리 의견을 국민을 대신해서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문대림 위원 의사진행발언.....

○전종덕 위원 빨리 로텐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주철현 위원 3시에 로텐더홀로 가야 됩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잠깐.....

○윤준병 위원 의결을 해야 돼, 의결을.

○위원장 어기구 잠깐만, 우리.....

○이원택 위원 잠깐,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좀 하고 마치고 그다음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께 지금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요청합니다.

잠깐 좀 집중해.....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송미령 농식품부장관과 국무회의 참석 대상인 강도형 해수부장관의 위원회 출석을 통한 증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회에 송미령 장관과 강도형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128조, 동법 제129조에 따라 오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사건과 관련한 현안보고 및 최근 농정 현안 등 현안보고를 위해서 송미령 장관과 강도형 장관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요청합니다.

---

##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14시51분)

○위원장 어기구 이원택 위원님으로부터 다음 전체회의에 정부 측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 측 출석요구와 보고요구 등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동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회법 제71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

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는바 이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을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14시52분)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2인에 대하여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안질의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부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 3.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12월 13일 금요일 날 10시에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 최근 현안에 대한 보고 및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보고 등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장관과 강도형 장관께 우리 위원님들이 12·3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쌀값, 폭설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 등이 심각하니까 현안질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류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17시까지 요구하실 서류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 및 현안보고 등의 요구를 받은 기관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2인)

성명	직업	출석일	신문요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2. 13.	1.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황 보고 - 12·3 비상계엄 시 국무회의 참석 경과 관련 등 2. 최근 농정 및 해양수산 현안 등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1.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황 보고 - 12·3 비상계엄 시 국무회의 참석 경과 관련 등 2. 최근 농정 및 해양수산 현안 등

○출석 위원(12인)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병진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